

2/4/24

설교 제목: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골로새서 3 장 1-17 절

- (골 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골 3: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 (골 3: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 (골 3: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 (골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 (골 3: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 (골 3: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 (골 3: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 (골 3: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 (골 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 (골 3: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 (골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 (골 3: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 (골 3: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 (골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관주** 엡 5:19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절관주** 골 3:23, 고전 10:31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서신을 받아 볼 교인들을 위하여 앞 부분에는 기독교 교리를, 뒷  
부분에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 부분 1 장과 2 장에서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하는 신학적 교리를, 3 장과 4 장에서는 성도들이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데 있어 실천적인 내용 곧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가치관과 삶에 대해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천의 문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전제 위에 논의됩니다.  
성도의 실천적인 삶은 거듭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골 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 3: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본 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 부분과 맥락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는 말이므로 2 장과 연결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장에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 사건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으켜 살리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는 하늘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신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골 3: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 3: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얻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상에 대해 감추어진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수여자로서 자신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을 언급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골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 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네 가지 모두와 상관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신분 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성화 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죄를 제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그 결과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성도들 아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전에 행했던 것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고 합니다.

(골 3: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골 3: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골 3: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옛 사람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옛 본성을 의미하며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새로운 본성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 창조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새 사람이 획득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며, 새 사람은 이 지식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 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는 즉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형제입니다.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인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위에서 차별도 없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골 3: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야 할 것들을 언급합니다.

금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피자 용서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골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금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 3: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 3: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금흠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으로 동정어린 마음 혹은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이며 타인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온유는 비양심적인 착취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오래 참음은 보복을 행하지 아니하고 중상 모략을 견디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용납과 용서는 오래 참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덕목 곧 금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위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사랑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게 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골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의 이름으로 하고’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에 가치를 두는 세속적 가치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는 자들도 이러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보다는 사사기 때처럼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겉 사람은 거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 사람은 내 만족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이라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땅의 것을 벗어나고 위에 것 곧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땅의 것 곧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이런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시다.

성화의 삶을 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